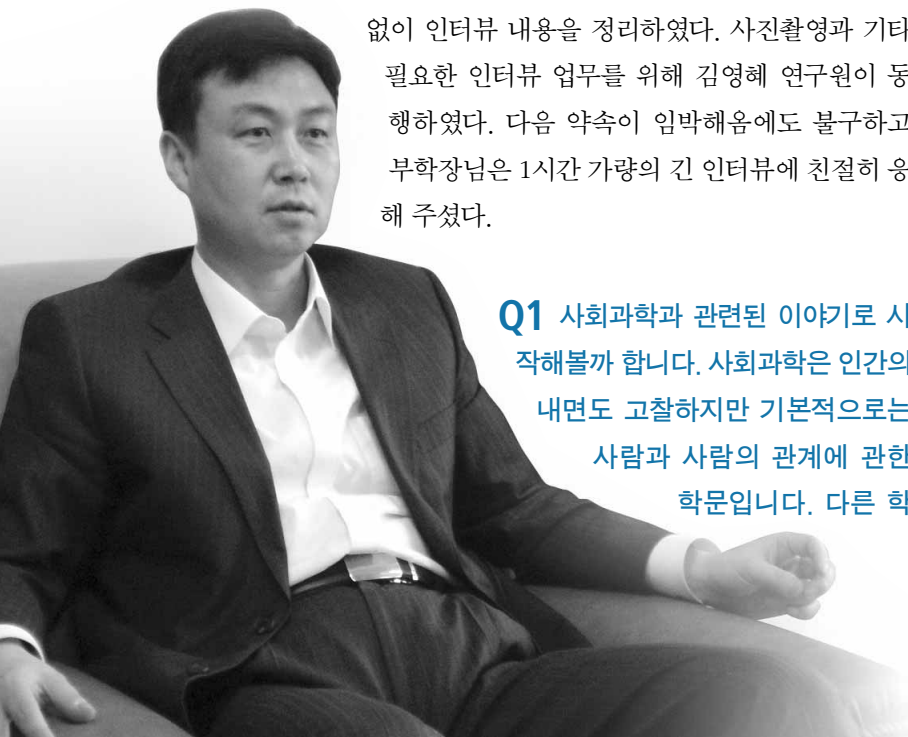


김재영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 인터뷰

단과대학탐방

개나리가 만발한 작은 언덕들을 보며 사회대로 가는 길은 지난 주말에 다녀온 제주도 유채밭의 여정을 이어가는 듯했다. 김재영 교무부학장님의 집무실은 조용한 연구 분위기에 더해 사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열정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유채밭 여정은 집무실의 차분함과 열정에 흡수되었다. 부학장님은 먼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활동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다. 교수과정의 동영상 촬영을 통한 강의 분석과 글쓰기교실의 기능 및 학습지원과 eTL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다. 그러나 대담 중간중간, 홍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셨다. 학생들에게나 교수님들에게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기능이 그 활동과 성과의 중요성만큼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담을 이끌어가자는 제안이 있어 이야기 순서에 관계 없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사진촬영과 기타 필요한 인터뷰 업무를 위해 김영혜 연구원이 동행하였다. 다음 약속이 임박해오에도 불구하고 부학장님은 1시간 가량의 긴 인터뷰에 친절히 응해 주셨다.

정병기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교수



Q1 사회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회과학은 인간의 내면도 고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학문입니다. 다른 학

문에 비해 현실에 더 천착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과학의 발전과정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사회과학은 말 그대로 인간사회에 관한 학문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사회의 여러 가지 기본 속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연구자 개인이 몸담고 있는 현실이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과학연구도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 학계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연구의 기본 틀과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연구주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사회과학연구의 틀과 주제를 개발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근대화와 선진화의 기본요건인 경제발전과 민주화 - 비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 를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과정을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사회의 변천과정에 대해 연구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사회의 초기 변천과정은 기본 틀과 방향에서 미국, 유럽, 일본과 유사한 면이 많았지만 그 후의 진행과정은 여러 면에서 이들 선진국들과 상당히 다른 면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997년 외환위기와 그 이후 우리사회의 변천과정은 또 다른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과 우리사회의 변천사 전반이 우리 사회과학도들에게는 우리 나름의 사회과학을 개발할 수 있는 더 없이 소중한 연구 주제라고 봅니다.

Q2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그 화두가 깊이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어떤 노력과 기여를 해왔는지요? 이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정체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를 앞서

말씀드린 우리 현실에 맞는 사회과학 또는 한국적 사회과학 - 이 역시 다소 모호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까 합니다. 사회과학대학 내 각 전공분야의 교수님들과 그 제자분들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우리사회의 과거 및 현재 문제들을 연구 주제로 하여 크고 작은 규모의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이루어 내고 계십니다. 또한, 같은 전공분야 내에서의 협동연구뿐 아니라 전공분야를 뛰어 넘어 학제간 융합성격의 공동 연구프로젝트가 여기저기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의 연구발표회가 매주 여러 건씩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전 사회과학대학 차원에서의 심포지움이 두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0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여러 주에 걸쳐 주제별로 있었는데, 해방 후 6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발전 및 변천과정을 조명해보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사회과학적 이슈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아 외환위기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회과학대학 내 여러 전공분야의 선생님들이 다각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양성과 전문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은 어떠한 이념이나 '운동'에 의해서 확립되기보다 이러한 활발한 연구활동과 그 결과물들이 축적되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의 교육 현실과 개선 활동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의 대표적인 것들을 지적해주시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 사회과학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선, 학생 수와 개설강좌 수 대비 교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교수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28명으로 외국대학은 물론 서울대학교 타단과대학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전공의 학생 수만을 계산한 것으로, 각 교수님들이 담당하는 강의 수강생을 고려하여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계산한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될 것입니다. 사회과학대학 내 많은 강좌들이 수강생 120명 이상의 대형 강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공간 및 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열악합니다. 특히 강의실 사정이 심각합니다. 사회과학대학 인근의 강의시설에서 전체 강의의 60~70% 정도 밖에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며, 150명 이상의 수강생이 수강하는 대형 강좌가 다수인데 비해 사회과학대학 16동 내에 이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이 전무합니다. 사회과학대학 대학원생을 위한 공간 및 시설 또한 터무니없이 부족한 편이어서 교수 연구실 정도 크기의 공간에 15명의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실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강좌에 따라 멀티미디어 시설이 필요한 강좌가 있는데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16동의 경우는 멀티미디어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강의실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16동 인근의 83동에는 전반적으로 강의실마다 멀티미디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83동 강의실은 사회과학대학뿐 아니라 다른 단과대학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교양과목의 강의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사회과학대학 전공과목 강의에의 사용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Q4 요즘 서울대학생들, 특히 사회과학대생들의 글쓰기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강의와 과제물 등에서 글쓰기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이 사회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A4 현대의 지성인에게 글쓰기는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는 다른 것에 비해 글쓰기교육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교육과정에 글쓰기 교육부분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전공분야별로 그에 맞는 제대로 된 글쓰기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글쓰기는 해당 학과별 전공과목에서 과

제물과 논문쓰기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글쓰기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가져오신 팜플렛을 보니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글쓰기교육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아직 그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교육프로그램의 홍보와 함께 그 잠재수요를 잘 파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실제로 글쓰기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제학부 같이 학생 수가 많은 학과를 위해서는 별도의 글쓰기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글쓰기교실의 기능과 글쓰기교과목이 경우에 따라서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협력과 분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5 강의 개선을 위해 사회과학대학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협력할 사항이나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5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어 가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매학기 시행하고 있는 교수법워크숍 등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사정상 참여가 어려운 교수님들을 위해 CD/DVD 등으로 제작하여 원하는 분께 제공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우수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수 강의의 장점부분을 위주로 평가자의 의견을 편집해 넣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우수강의 전체나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한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점에 대한 다른 강의자들의 간단한 의견을 해당 부분에 편집해 넣어 새롭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강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특히 신입교수 등 교수법에 관심있는 다른 교수님들에게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의평가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강의평가를 강의에 대한 강의제공자와 수요자간의 의사소통 기회의 개념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주요 기능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강의에 대한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죠. 교수님들은 대체로 강의에 성심성의를 다하시고 학생들 또한 강의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강의에 대해 교수-학생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충분히 강의의 수준과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국에서 보통 시행하고 있는 상호 견제식 강의평가제도의 장단점을 한번쯤 숙고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방식의 강의평가제도는 그 순기능적 측면과 함께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은 강의평가를 위하여 강사가 난이도 높은 강의내용과 과제물을 피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여 강의의 수준과 내용을 오히려 저하시키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경우에 따라 강의평가가 강의의 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강사의 인기도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현재 우리 서울대학교의 교수(강사)-학생간 강의에 대한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좋은 방안을 개발하여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학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고, 더욱 훌륭한 교수와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개발센터도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